

서는 볼 수 없었던 품격 높은 디자인과 격이 다른 인테리어 공간을 자랑하는 SM7의 제품 컨셉을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던 '차' 라는 광고 컨셉으로 전달하고 있다.

[새 광고] KTF SHOW, 오렌지킬러폰



오렌지라인만 두르면 비만청년은 천하장사로, 원숭이 인형은 손오공으로, O라인 평퍼짐너는 S라인 날씬너로, 어리숙 백수는 날쌔 고수로 탈바꿈한다? 바로 새롭게 출시된 SHOW 전용폰 '오렌지킬러폰'의 광고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다. SHOW 전용폰인 오렌지킬러폰은 메탈베이스, 블랙 색상에 오렌지색 키패드와 테두리로 세련미를 강조한 3세대 영상통화의 대중화를 선도할 휴대폰이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웰콤의 관계자' 이번 광고는 오렌지라인이라는 제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함은 물론 SHOW가 추구하는 이미지인 "FUN과 LIVE" 톤엔 무드도 잘 표현되고 있어, 밝고 재미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타겟에게 충분히 어필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새 광고] 교보생명, 보험의 꽃' 캠페인

교보생명의 '보험의 꽃' 캠페인은 재테크가 아닌 가족사랑에 근간을 둔 보험의 본질을 진지하게 전하고 있다. 수익률이 나 은퇴설계 등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는 광고가 아닌, 나보다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가족을 평생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가입하는 게 생명보험이라는 진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보험은 다이아몬드처럼 당장 빛나지 않고 페스트푸드처럼 금방 배부르지 않는다는 인쇄광고 이미지로 문을 두



드린 '보험의 꽃' 캠페인은 손주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받고 행복해 하시는 할머니, 애인에게 사랑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여성, 운동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받는 환희의 꽃다발 모습 뒤로 '보험의 꽃은 당신의 가족이 힘들 때 피어납니다'라는 메시지가 힘들어 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을 지워주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심의위원 추가 위촉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새로이 광고불만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광고심의기준위원회(심의기준 수립 및 재심의) = ▲위원 최주호(한국방송광고공사 이사)
- ◆ 제1광고심의위원회(지상파TV·라디오방송) = ▲위원 이명천(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하행봉(한국광고협회 상무)
- ◆ 제2광고심의위원회(케이블TV·위성방송) = ▲위원 박상훈(前 동아계약 상무이사), 이정환(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장)
- ◆ 광고불만처리위원회(신설) = ▲위원 이기홍(선연투웨이애드 회장), 정경동(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